

### 봉축사설

## 부처님 오신뜻 세계인과 함께

올해 2546년 '부처님 오신 날' 행사의 코드(codex)는 곧바로 전 세계로 이어져 있음을 느낀다. 세계 스포츠 제전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마치 그 전야제처럼 온 국토에 연등을 밝히는 '부처님 오신 날' 문화 축전들이 그렁고, '부처님 마음으로 인류평화 성취를'이란 봉축 표어 또한 세계인을 향한 제의를 담고 있다.

불교계는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널리 세계에 전하겠다는 각오로 진작부터 올해의 봉축 행사를 여법하게 준비해 왔다. 봉축행사를 국민축전으로 승화 시키고 외국인들을 대거 참여시켜 불교문화를 널리 세계에 알리는 한편, 사부대중의 자비 실천 행사로 믿음과 신행의 본모습을 세계에 보여 주겠다는 것이다.

'현상현하에 오직 내가 존귀하니, 세상의 고통을 내 마땅히 평안케 하리라(天下唯我獨尊 三界皆苦 吾當安之).'

저 유명한 부처님 탄생제는 오늘의 세계에서 그 의미가 더 빛나고 있음인데, 지난해 9.11 테러사태 이후 세계는 갈등과 대결로 치달아 인류는 불안과 고통에 휩쓸려 있으며, 국내 사정 또한 극한 대립을 불러 고통을 불러 오고 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부패한 권력으로 척어가며 병들고 있는 세상,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바로 오늘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조계종 중정 법전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은 중생이 부처로 탄생되는 날, 이제 밖에서 찾은 것 없으니 마음 속에 살아있는 여래를 봐야하며 귀천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고 '자기가 살려고 남을 해치는 것은 자욕을 만드는 일이고, 중생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것은 안심입명(安心立命)을 얻는 길'이라는 뜻깊은 메시지를 내 놓았다. 우리가, 아니 인류가 지금 어떻게 변화해야 병들고 혼탁한 세계에 희망을 안겨 줄 수 있을 것인지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할 것이다.

'오늘은 중생이 부처로 탄생 되는 날.' 그렇다. 부처님의 대비심은 아픔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생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마음이다. 우주 삼라만상을 그 대비심으로 가득 채우고 계신 부처님은 지금도 자비의 눈물 흘리시며 우리들에게 마음속 부처성품을 불러일으키도록 일깨워 주고 계신다. '마음속에 살아있는 여래를 보라'고. '그 여래는 동체대비의 마음이며 통사섭이 아니겠느냐'고.

그래. 오늘 우리는 부처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날이다.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부처님 탄생은 희망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고통 받는 매일 매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 되어 모든 중생 스스로가 부처로 거듭 나게 되는, '중생이 부처되는 날' 이 오늘인 것이다.

'인류 평화의 성취'란 공인 역시 여기서 해법의 열쇠를 찾을 것이다.

올해 봉축 기간은 한국불교가 부처님 오신 뜻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온 국토에 연등을 밝히고 천년을 이어온 수승한 문화전통을 세계인 앞에서 펼쳐 보이는 장엄한 행사들이 왜 필요하지 않겠는가. 독특함으로 빛나는 한국 불교문화를 불자들의 애정과 자부심으로 국제무대에 올려 이를 세계 문화의 보편성에 편입되도록 노력하는 일 역시 큰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 뜻은 세계에 구현해 나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자들, 그 사부대중들의 신해행중(信解行證)의 나타냄이 아닐 수 없다.

먼저 믿음을 낸 사람들의 솔선한 행중의 증거, 보살행의 증거가 없고서야, 그리고 믿음으로 해서 '중생이 부처되었음'을 보여주는 변화의 증거가 없고서야 사람들, 나아가 세계인들에게 어찌 부처님 오신 뜻을 올바르게 전해 줄 수 있겠는가.

올해 봉축연등을 밝히면서 '중생이 부처되는' 그런 서원들을 세워보자.

# 예술·포교 전문인력 양성 기틀 마련

## 조계종, '특수교육기관 설립' 종령 공포

### 시설설치·폐지 교육원회의 의결 거처게 학장은 승랍 20년 학부이상 학력 승려로

조계종이 불교예술과 포교 등의 분야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조계종 총무원회는 7일 총무원회의를 열고 교육원이 신청한 '특수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을 원안 그대로 확정, 공포했다.

이번 종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계

종은 문학·미술·건축·무용 등 문화예술분야와 방송·언론, 정보화 분야 및 포교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특수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종벌에 특수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돼 있기는 하나, 이를 설립할 수 있는 시행령종

령은 마련돼 있지 않았었다.

특히 특수교육기관설립 및 운영은, 전문성 강화는 물론 교육 기회 및 분야가 넓어진다 점에서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배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종령 제정안을 마련한 조계종 교육원은 "전문인력 양성 등의 목적 외에 3급 승가고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도 특수교육기관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필기고사로 실시되는 3급 승가고시에 적용될 '특수교육기관을 이수한 자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조항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스님들의 불만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포된 '특수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령'에 따르면, 시설 설치 및 폐지는 교육원회의 의결을 거처도록 했다. 또 일반교육기관을 종단 특수교육기관으로 지정하거나, 특수교육과정으로 인정되는 교육기관과 전문가에게

특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해 놓았다.

학장은 승랍 20년 이상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학부이상 학력의 승려로 제한했으며, 교수는 승랍 15년 이상으로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의 승려나 해당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재가신도로 자격을 한정했다.

학제는 2년 4학기, 한 학기 16주 이상의 수업을 받도록 했으며 종단이 정한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구조계를 수지한 비구(니)에게만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교육원 전형근 차장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특수교육기관 설립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 "월드컵 목전, 화합 모습을"

### 7대 종교지도자 '정쟁 중단 촉구' 호소문 발표

2002년 월드컵 개막을 20여 일 앞둔 가운데 종교계가 여야 정치권에 무분별한 정쟁의 종단을 요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천주교 중앙의회의 김중수 신부, 기독교교회협의회 백도용 목사 등 7대 종교 지도자들은 8일 서울 총무로 한국교회에 모여, 월드컵 성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단합하자는 '대 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국가대사인 월드컵을 앞두고 사회 각 분야가 다름의 모습을 버리고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종교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호소문을 통해 종교계는 정파와 정치권에 월드컵 기간 동안의 정쟁 중단, 각종 비리사건의 엄정한 수사, 노사화합 등을 촉구했다.

강유신 기자



조계종 스님들이 신계사터에서 봉축법회가 끝난뒤 탑돌이를 하고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보성·현성·지오·학담스님 순

### 금강산 신계사터서 봉축법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정연가) 5일 북한 금강산 신계사터에서 '2546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 해인사 강주 지오스님, 학

담·진원·법종·법성스님(이상 조계종 총회위원), 총무원 사회국장 해림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연등달기, 점등행사, 탑돌이 등을 통해 민족화합과 통일을 염원했다.

강유신 기자

대사대비하신 부처님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고자 부처님께서 오신 뜻 깊은 이 날을 맞아 남과 북의 전체 불자대중은 부처님 깨달으신 진리의 참뜻을 되새기면서 한마음 기울여 남북 각지 사찰들에서 동시법회를 열고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며 우리들의 간절한 통일소망과 의지를 담아 부처님 전에 이 발원을 올립니다.

자주통일의 기치인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하고 이행하기 위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실천행동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삼천리 내 조국강토는 겨레 모두의 삶의 터전이고 우리 남과

북공멸을 불러오는 안팎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 떨쳐나서겠습니다.

통일애로 가는 길 험난하여도 6.15공동선언의 합의아래 하나로 뭉쳐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려는 겨레의 염원을 가로 막을 힘은 없습니다.

###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공동발원문

북 불자 모두의 영원한 불도량입니다. 이 신성한 조국 땅에서 더 이상 동족끼리의 갈등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변한다 해도 민족

겨 나가려는 우리들의 앞길에 부처님의 자비공명이 언제나 두루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참가 사부대중 일동

### '현대' 만평 김 영 민

부처님 마음으로 인류평화 성취를

### '평화·화해의 세상 만들자'

기독교교회협의회는 7일 부처님 오신날 축하메시지를 발표했다.

기독교교회협의회는 축하메시지에서 "하늘 위, 하늘 아래 모든 존재의 존귀함을 설파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종교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있다"며 "그리스도인들과 불자들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다름과 분열이 없는 화해된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계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주필 : 김병규  
인쇄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997  
구독신청·배달인사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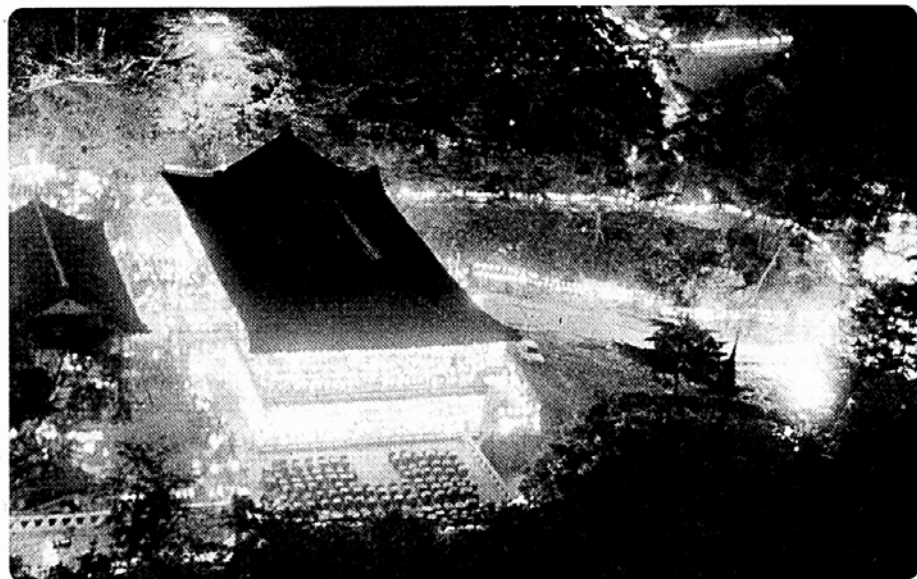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장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과 관련된 문의나 부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722-4162 FAX: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 삼각산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취임식



귀의 삼보하옵고 한국불교정화의 횃불을 밝히시고 중생제도의 원력을 세우신 청담 대종사의 가르침이 숨쉬고 있는 삼각산 도선사에서 제방의 여러 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주지 취임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코저 하오니 두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6년 5월 23일(음력 4월 12일) 오전 11시
- 장 소 : 삼각산 도선사 호국참회원
- 연락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 전 화 : 02)993-3161~3 FAX 02)993-3164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

## 삼각산 도선사 주지 취임식 봉행위원회